

사회

대낮 집 주변·놀이터 조심하라

광주 어린이 성범죄 올 상반기 20건중 절반

광주청 정보공개... "방학중 혼자 다니면 위험"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 자녀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낮에 학원을 마치고 학교 주변 공터·놀이터·주택가 골목길에서 노는 아이들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대낮 시간에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학교 주변 공터·놀이터·주택가 골목길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광주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아동 성범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폭행 등 아동 성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20건이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아동 성범죄(37건)의 54% 수준이다.

경찰서별로는 북부가 9건(지남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부(6건)·남부(4건)·광산(3건)·13건) 각각 3건씩, 동부 2건(2건) 등의 순이었다.

월별로는 초여름인 6월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인 2월에는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남해에도 6월이 아동 성범죄가 9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고, 겨울철인 1월·2월·12월에는 한 건도 없었다.

범죄는 주로 대낮에 발생했다. 정오~오후 6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13건(지남해 14건)이었고, 이어 오후 6시~밤 9시 사이가 4건(5건)이었다. 오전에는 성범죄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범죄 발생 장소는 주로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닌 행인들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 일어났다. 학교 주변 및 놀이터, 주택가 골목길에서 5건씩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동 성범죄자 가해자는 대개 친척이나 이웃 등 피해 아동의 얼굴을 잘 아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 20명 중 8명(40%)이 가해자 집 또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를 당한 것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와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차단 강화 등 다양한 치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 및 대응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급격 부모와 동행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유치원이나 학원을 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방학을 맞아 놀이터에서 놀 때도 반드시 여럿이 함께 놀도록 지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지인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싫다'는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슴 등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 '싫다'고 소리쳐야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 해바라기아동센터 김향화 강사는 "방학중 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자녀와 함께 학원과 놀이터, 집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본 뒤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외국인 노동자들 시름있는 하루

25일 전남대 체육관에서 광주시민서포터즈와 광주전남기자협회 공동주최로 열린 '제3회 전국 외국인 노동자 배구대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흥겨운 울동으로 경기에 나선 동료들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살인범 등 16명 DNA 채취... DB 구축

강력범죄 수감자 2만명도

검찰이 살인이나 마약, 성범죄 등의 죄로 복역하다 26일 출소하는 16명의 DNA(디옥시리보 핵산)를 채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본격 돌입한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살인, 아동·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간·추행, 강도, 방화 등 11개 강력범죄 수감자 2만명과 새로 형이 확정되는 범죄자(매년 1만9천명 추산)를 상대로 DNA를 채취해 보관한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매년 1만5천명 추산)의 DNA는 경

찰에서 채취해 보관하게 된다.

검찰은 형을 마치고 출소할 때에는 법 시행일에 출소하는 16명을 우선 채취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잔여형이 8세 이하를 성폭행해 12년 형이 선고된 조두순이나 사형이 확정된 연쇄 살인범 강호순 등도 DNA 채취 대상이다.

DNA 채취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뒤 입안을 면봉과 비슷한 채취 도구로 닦아 내거나 모발 10여개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검찰은 30만~40만건의 DNA자료가 모이면 미제로 남은 범죄의 10% 정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월동 성추행 용의자 범행 자백

경찰은 정체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하는 한편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초등생 납치 신고 해프닝

지난 22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J파트 앞길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30대 후반의 남성에게 납치됐다는 신고(본보 7월 23일 6면)를 받고 수사를 벌인 광주북부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오인 신고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이중행기자 golee@

여수 여명학교 후보지 주민 "우리동네 오지마"
족립리 야산 결정... 공사비 추가 지연 불가피

특수학교 이설 정말 어렵네

내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장애학생 특수 공립학교인 여수 여명학교의 이설 사업이 남비(NIMBY)현상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명학교는 이설 예상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3년이 넘도록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주민이 없는' 산중턱으로 옮겨가기로 했지만, 산악기 공사 등에 따른 막대한 추가 공사비와 함께 공사기간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07년 비좁은 학교부지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한 여수여명학교(여수시 문수동·부지면적 6595㎡)를 2011년까지 이설하기로 하고, 181억8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유·초·중·고의 지역·지체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이설학교의 규모는 2만5350㎡의 면적에 27학급 190명으로 승인됐다. 도 교육청은 당시 이설 예정부지를 여수시 소라면 일대로 확정하고, 전남도교육위원회의 동의안 의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지역민의 '남비현상'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지역민들은 "왜 우리 동네에 특수학교를 세우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도 교육청은 주민 1대 1 면담을 비롯한 마을 주민회의 등을 통해 설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이후 도 교육청은 3년여동안 여수시 만흥·봉계·호명동을 비롯한 관거리 등 여수지역 70여곳의 부지를 이설 후보지로 검토했으나, 지역민의 반대와 이설 부지 부적합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다급해진 도 교육청은 지난 16일 거주주민이 없고 마을도 없는 여수시 족립리 산 125-3번지 일원을 이설부지로 확정하고, 여수시에 '학교이설 결정 변경안 입안 재계'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산 중턱에 위치한 이 부지는 예초 토목공사비 과다소요 등이 예상돼 적정 부지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산을 깎아 양쪽에 축대를 세우는 등 추가 토목공사비가 불가피해, 자칫 대형안반 등이 나올 경우 엄청난 추가 공사비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원침 (8082) 김중두



외할아버지 차 치여 두살배기 남아 숨져

두 살배기 남아 아기가 외할아버지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무안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5분 무안군 현경면 공터에서 두 살배기 남자 아기가 후진하던 1t 화물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화물차량 운전자는 숨진 남자 아기의 외할아버지로 교회에 가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다 차량 뒤에 있던 손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외할아버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식당 옆순넬 뺨때린 고은아 입건

○서울 강남경찰은 25일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탤런트 고은아(22·여·명방방송)씨를 불구속 입건.

○경찰청에 따르면 고씨는 25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장모(20)씨의 뺨을 때린 혐의.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일행이 칸막이를 건드린 옆 손님들과 말싸움을 벌이던 와중에 장씨가 "연예인이면 다냐. 별것도 아닌 것이 있는 척하네"라고 비꼬는데 격분해 일을 저질렀다고.

/연합뉴스

술집서 시비 30대 흥기 찢려 사망

25일 새벽 광주 염주동서

25일 새벽 3시15분께 양모(38)씨가 광주시 서구 염주동 자신의 원목 입구 앞에서 흥기에 찢려 신음하고 있는 것을 이웃에 살던 김모(17)군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양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전남대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4시께 과다출혈로 숨졌다. 양씨는 예리한 흉기로 가슴과 복부 등 5곳을 찢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은 경찰에서 "새벽에 책을 읽던 중 밖에서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양씨가 원목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양씨는 이날 새벽 1시께 풍양동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지인이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벽 술집에서 우연히 양씨를 본 양씨의 친구 3명은 "양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양씨의 지인이 곧바로 술집에서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씨가 시비를 건 것으로 알려진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경찰조사 후 가족 인계 20대 목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대학생이 부모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서를 뛰쳐나간 뒤 4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소나무에 광주 모 대학 3년 최모(23)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 고모(70)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산책을 걷는 데, 나무에 한 남성이 목을 매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전날 밤 11시께 서구 금호동 한 술집에서 술값 문제로 술집 주인과 다툰 뒤 이를 본 손님(43)과 서로 주먹을 휘둘러 지구대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최씨는 25일 새벽 1시께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옮겨진 뒤 술에 취해 고향을 지르려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경찰에 의해 한 시간 뒤인 새벽 2시께 부모 등 가족에 인계되던 중 갑자기 경찰서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 창토시장 영화시청 | 하남점

1관 마법사의 제자(연재)	1관 포화속으로 (124)
2관 마음이2 (연재)	2관 나이트&데이 (154)
3관 포화속으로(124)/이클립스 (124)	3관 슈렉 포에버(더빙) (연재)
4관 이클립스 (124)	4관 슈렉 포에버(3D) (연재)
5관 평행세계: 천공의 단편선 (연재)	5관 슈렉 포에버(더빙) (연재)
6관 나이트&데이 (154)	6관 인셀션(124)
7관 슈렉 포에버(더빙)/포화속으로(124)	7관 인셀션(124)
8관 인셀션(124)	8관 이클립스 (124)
9관 이끼(184)	9관 이클립스 (124)
10관 이끼(184)	10관 마법사의 제자(연재)

왕도시청! 영화시청! 매일 심야시청 / 호남최대주최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1관 인셀션(124)	최고급관
2관 이끼(184)	
3관 이클립스 (124)	
4관 나이트&데이(154)/이끼(184)	
5관 이끼(184)	
6관 마음이2 (연재)	
7관 이클립스 (124)	
8관 마법사의 제자(연재)	
9관 인셀션(124)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호남주최장역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의 관람료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가시 영상음향 부록

CINUS

1관 인셀션(124)
2관 이클립스 (124)
3관 슈렉 포에버(연재)/이끼(184)
4관 마음이(연재)/나이트&데이 (154)
5관 이끼(184)
6관 마법사의 제자(연재)
7관 인셀션(124)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